

# ‘동산문화’가 곧 동산의 역사,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최기형  
교장선생님

10년 전 개교 70주년에 500여 명의 동문들과 교직원 및 지역사회인사들의 성금으로 동산인들의 기상을 표상하는 '청룡상'을 건립하고 '70년사'를 발간하면서 민족사학의 자긍심과 동산인들의 감동적인 모교애를 느꼈습니다. 그 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올해 80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몇 가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80년사'를 발간하였고, 숙원사업이었던 '동산 역사관'을 개관하였으며, 20여 년간 발전기금을 회사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최승우 기념관에 '발전기금 기부자 현황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앞 복도 벽면에는 '자랑스런 동산인상'을 수상하신 동문들의 사진과 약력을 게시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는 교정 조경 사업을 하고 시설물 및 게시물들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교직원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고 결과물에 대하여 모든 동산인들이 좋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또, 복도를 오가는 학생들이 '자랑스런 동산인상'을 유심히 보고 있거나 '역사관'에 둘러 이모저모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물론 학교를 방문하시는 많은 동문들께서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80년사' 발간에 큰 힘을 실어주신 서한샘 총동창회 고문님의 헌신적인 모교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총동창회 행사에서 '동문들이 곧 동산의 자랑스런 모습'이라는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개교 80주년 기념식의 내빈소개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들이 곧 동산 80년 역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어난 사건이든 그것의 기록이든 역사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개교 기념식장 단상에 계셨던 원로 동문님들과 퇴직하신 선배선생님들을 뵈면서 그분들의 존경스런 모습이 곧 '자랑스런 동산 80년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945년 야구부 창단멤버이자 KBS아나운서실장을 역임하신 황우겸 동문, 청룡기 3연패의 주역 신인식 동문, 20여 년간 1억 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회사하신 신용하, 노명선, 서한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 그리고 후배 선생님들에게 사도의 표상으로 존경을 받으며 40여 년 재직하다 퇴임하신 오창옥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동산 발전에 헌신하신 여러 선배 선생님들께서 자리에 계셨습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는 중학교 졸업생이신 박남춘 시장님과 허인환 동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어 모교예를 드러내고 학교지원을 약속하는 축사를 통해 행사를 뜻깊게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동산의 역사는 여러분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매 학기 간행되는 '동산문화'가 곧 동산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발행되는 '동산문화'는 '동산 100년사'의 자료가 됩니다. 정규 교육활동은 물론 자신의 진로나 취미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교외활동도 소중한 역사로 기록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도록 기대합니다. 끝으로 개교 80주년에 간행되는 <동산문화 38호>의 출간에 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